http://dx.doi.org/10.5392/JKCA.2016.16.01.230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x-Role Attitude of the Elderly Couples on Marital Satisfaction

임나현
호서대학교

Na Hyun Im(glory1960@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성역할 태도(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와 결혼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378부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위계적회귀분석, t-test 및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성역할 인식은 결혼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성능력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중심어 : | 성역할 인식 | 성능력 인식 | 결혼만족도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he sex-role attitud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coupl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factors as well as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role attitude(sex-role awareness, sex-capacity awar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378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elderly couples who were pus 60 and live in Gyeonggi-do areas. And th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test, and ANOVA were carried out through SPSS Ver. 2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s of the sex-role attitud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couple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were found partially.

Second, the sex-role awareness of the elderly couples affected on marital satisfaction positively, but the sex-capacity awareness did not.

■ keyword : | Sex-role Awareness | Sex Capacity Awareness | Marital Satisfaction |

Ⅰ. 서 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결혼 지속 년 수가 늘어나면서 노년기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및 노인의 독립적 생활욕구로 인해 자녀들의 출가와 은퇴이후에 노부부만 생활하는 노인가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황혼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황혼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1].

접수일자 : 2015년 07월 29일
수정일자 : 2015년 09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9월 09일
교신저자 : 임나현, e-mail : glory1960@naver.com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후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2006년 19.1%에서 2008년 23.1%, 2010년 23.8%로 증가세를 보이고, 대법원이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에는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 간 인생의 동반자로 살다가 늘그막에 새 삶을 선언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황혼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가부장제에 의해 지배되어 왔기 때문이다[2]. 이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결혼이 정상적이고 이혼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원화 시켜서 이혼을 부정적인 행위로만 보았다. 그러나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런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3].

둘째, 가족적 차원에서 볼 때 역기능적인 요인이 있고 생활주기에 따른 요인이 있으며, 남편의 은퇴 후 재적응 문제를 들 수 있다. 은퇴하기 전의 부부는 각자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삶의 의미, 자아존중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리된 영역과 활동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명확한 경계가 은퇴로 인해 없어지게 되면서 남편이 부인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갈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마음에 서린 한, 자아실현의 욕구,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들과 자녀의 양육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4].

특히 전통적 가족 규범이 붕괴되고 가정 내 핵심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현격한 의식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황혼이혼의 원인들을 해소하고 결혼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성역할 태도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5][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간의 여가공유, 역할의 균등, 의사소통, 부부갈등, 상호지지, 역할공유와 분담, 성생활만족도 등의 단편적인 변인들과 삶의 만족도[7], 결혼의 질[8], 심리적 복지감[9] 등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노년기 부부관계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동시에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성역할 태도는 노년기 부부의 친밀감을 높이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연구[1][9]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부부 친밀감 및 만족도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노년기 부부의 결혼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노년기 부부의 결혼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황혼이혼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역할 태도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부부관계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노년기의 부부관계가 길어지면서 노년기의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년기 이후 아내는 적극적인 부모역할에서 벗어나고 남편은 은퇴로 인해 직업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 모두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데 있어 부부관계의 질과 결혼 만족도가 중요하며[10], 노년기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다. 이 때 부부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 그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만족감에서 새삼 진실한 동반의식을 갖게 되고 더욱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떠나보내고 난 후의 빈 둥우리 시기인 노년기에 부부간의 친밀도가 강화될 수 있는 반면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11].

한편, 노년기의 삶은 남편의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자원의 감소, 신체적 노화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12]. 즉,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동반자

적 지지자로서 정서적, 물질적 및 신체적 도움과 자아존중감을 높여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어느 시기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결속력 약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 혼인·이혼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1년에는 11만 4,300건으로 전년(11만 6,900건)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이혼은 2005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남성의 연령별 이혼건수는 2005년 50~54세 109백건, 55세 이상 119백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50~54세 170백건, 55세 이상 182백건이었고, 여성의 경우도 2005년 50~54세 69백건, 55세 이상 58백건에서 2011년에는 50~54세 125백건, 55세 이상 100백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평균 이혼연령이 남성 45.4세, 여성 41.5세로 전년 대비 각 0.4세 상승세를 보였는데, 10년 전의 남성 40.2세, 여성 36.7세에 비하면 각각 5.2세, 4.8세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청의 발표 자료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위기와 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므로 노년기 부부의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과 황혼이혼의 원인을 파악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노년기의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몸이 아플 때 최우선의 가족 부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년기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와 집결되기 때문에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삶의 만족 및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13][14]. 노년기 부부관계에 관해서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15][16], 부부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17][18], 부부의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19][20] 등이 이루어져 왔는데, 김수진[11]은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성역할 태도, 성생활만족이 중요한 요인인지를 확인하면서 조화로운 부부간의 적응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의 만족이나 자아통합감을 갖게 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가정 내 역할의 성별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정도[21]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나 여성 혹은 남성의 역할 및 특성에 대한 개인의 태도[11]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태도(traditional attitude)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말하고, 근대적 태도(modern attitude)는 성역할 내용의 융통성을 지향하는 태도를 나타낸다[1]. 즉,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적인 사회적인 역할 기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과장하여 성차별을 유지시켜왔으나, 부부의 성역할 태도를 논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성별에 따른 역할을 분리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가정 내에서 사회적 역할수행을 기대하는 양성적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22]. 양성성은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모든 특성과 잠재력을 살펴서 통합한다는 개념으로 가정 내에서 성역할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여러 영역 내에서 보다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23].

이미숙[24]은 성역할 태도를 남자와 여자의 일을 바깥일과 집안일로 구분하는 성별 역할의 분리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남녀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전통적 혹은 보수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바깥일과 집안일을 남녀의 일로 구분하지 않고 서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근대적이며 진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김태현과 박주희[25]는 성역할 태도를 가정생활 제반의 활동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성역할 수행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수행을 고정화된 이분법적 관념에 의해 구분하는 전통적 역할기대와 남성과 여성이 다양한 가족역할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양성적 역할기대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성역할 태도의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간 성역할 태도를 아내와 남편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반응하는 경향으로 보고,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나 여성 혹은 남성의 역할 및 특성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성역할 태도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기초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되어 왔다. 김은지[26]는 남성은 도구적이며 여성은 표현적이어야 한다는 보수성을 가진 문항들로 구성하여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였고, 김명원과 강민주[27]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여 부부의 성 역할 태도를 단일차원에서 접근하였고, 김수진[11]은 노인부부간 성역할 태도를 성능력 인식도(일상생활에서 타고난 능력이나 강·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믿음)와 성역할 인식도(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에 대한 개인적 믿음)의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혜성과 서미아[28]는 가정역할, 직업역할, 성격 및 행동에 관한 고정관념의 세 영역에 대하여 성역할 태도의 전통과 진보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정은[29]은 부부의 성역할 태도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능력 인식도와 성역할 인식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를 2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측정하였다.

성역할 태도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은주[30]는 자녀유무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차이가 있으며, 성역할 태도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김은지[26]는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나, 아내는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정은[29]은 성역할 태도에서 성능력 인식이 성역할 인식보다 더 높은 숫치를 보였고,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전혜성과 서미아[28]도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박연옥[1]은 충청남도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와 부부친밀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3. 결혼만족도

결혼 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부부의 행복과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관적 감정 및 태도[31]를 뜻하며, 결혼에 대해서 개인이 가진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는 태도이므로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시간적 차원에 의해 경험되는 선호의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32].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부의 역할분담과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능력, 부부관계, 부부권력, 성격,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을 들 수 있다. 부부의 역할분담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33] 등에서는 가사노동이 공평하게 분담되었다고 인지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은퇴 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만족이나 사기에 영향을 준다[34]. 성역할 태도는 가족생활주기를 통해서 모든 연령의 부부 적응 및 결혼 만족도에 관련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노인일수록 부부적응 및 결혼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25]. 그리고 유시순[35]에 의하면 여성 노인의 결혼 만족도에는 생활수준과 학력, 사회적 지지와 함께 부부간 의사소통, 정서지지, 성역할, 성생활 및 사회여가활동이 영향을 미친다. 한편 민경선과 전신[36]은 부부의 거주형태, 특히 비동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와 비동거할 때 결혼만족도는 모두 낮았고, 배우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다른 가족원과 함께 사는 것에 비해 혼자 거주할 때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남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여성이 가사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와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노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성역할 태도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도구의 구성

2.1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의 측정항목은 Osmomd와 Martin[37]의 Sex Role Orientation Scale 등을 참조한 선행연구[11][28]와 부부역할에 관한 연구[38]에서 발췌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성별로 타고난 능력과 강점 및 단점이 있다고 인식하는 성능력 인식과 부부간에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역할 인식에 관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이나 성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 태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2개의 요인(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로 도출된 성역할 인식 요인은 고유치 2.71, 설명 분산 30.12%로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남편의 의견을 따르거나 아내는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하는 등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로 도출된 성능력 인식 요인은 고유치 2.61, 설명 분산 28.96%로서 아내가 남편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남편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의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성 능력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성역할 인식 0.811, 성능력 인식 0.771로서 신뢰성이 높은 수준이었다.

2.2 결혼만족도

결혼 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 정도에 관한 총 7문항을 선행연구[19][33][35] 등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의 총변량은 73.79%이었다. 요인분석과정에서 모든 항목의 요인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신뢰성 분석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0.940으로서 신뢰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3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배우자와 별거/각방 유무, 자녀동거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건강상태 및 생활수준에 관해서는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기도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회복지관, 노인대학, 평생교육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 총 400부 중에서 결측값이 없는 총 378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검증, 분산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60	42.3
	여성	218	57.7
연령	60-64세	105	27.8
	65-69세	101	26.7
	70-74세	80	21.2
	75세 이상	92	24.3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155	41.0
	중학교 졸업	74	19.6
	고등학교 졸업	65	17.2
	대학교 졸업이상	84	22.2
직업 유무	없다	264	69.8
	있다	114	30.2
종교 유무	없다	114	30.2
	있다	264	69.8
배우자와 별거/각방 유무	아니다	256	67.7
	그렇다	122	32.3
자녀동거 유무	함께 안 산다	227	60.1
	함께 산다	151	39.9
결혼생활 유지기간	30년 미만	61	16.2
	30-40년 미만	103	27.2
	40-50년 미만	139	36.8
	50년 이상	75	19.8
건강상태	나쁘다	78	20.6
	보통이다	163	43.2
	좋다	137	36.2
생활수준	어렵다	92	24.3
	보통이다	240	63.5
	좋다	46	12.2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차이

[표 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유무, 자녀동거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및 건강상태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성역할 인식은 여성보다 남성이, 60~64세에 비해서 75세 이상에서,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는 있는 집단에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부에 비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30~40년 미만동안 유지한 부부보다는 30년 미만 혹은 50년 이상 기간 동안 유지한 부부들이,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보다는 나쁘거나 보통인 집단에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성능력 인식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에 비해서는 중학교 졸업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부보다는 동거하고 있는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30~40년 미만동안 유지한 부부에 비하여 30년 미만 유지한 부부들이,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보다는 보통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집단에서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연령과 직업 유무, 자녀동거 유무 및 결혼생활 유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난 결과로부터 노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성별, 학력, 종교 유무, 배우자와 별거/각방 유무, 건강상태 및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에 비해서는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집단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집단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각방을 쓰고 있는 부부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건강상태가 나쁜 부부에 비해서는 보통인 부부들이, 그리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집단보다는 보통이거나 좋은 집단에서 결혼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종합하면,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3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된 결과를 제시하면, 김수진[11]의 연구는 별거 유무에 따라 성역할 태도 인식에 차이가 있고 남성보다 여성이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별거/각방 유무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식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차별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사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분석결과

구분		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n=160)	3.02	.77	2.02*	3.05	.85	2.92**
	여성(n=218)	2.85	.79		2.80	.80	
연령	60-64세 (n=105)	2.76 b	.84	4.41** a>b	2.84	1.06	0.62
	65-69세 (n=101)	2.85 ab	.83		2.88	.77	
	70-74세 (n=80)	2.99 ab	.71		2.99	.62	
	75세이상 (n=92)	3.13 a	.67		2.93	.77	
학력	초졸이하 (n=155)	2.93	.86	0.33	2.76 b	.85	3.24** a>b
	중졸(n=74)	2.98	.81		3.10 a	1.00	
	고졸(n=65)	2.85	.68		3.00 ab	.59	
	대졸이상(n=84)	2.93	.67		2.91 ab	.76	
직업 유무	없다(n=264)	2.94	.80	0.52	2.87	.81	-1.31
	있다(n=114)	2.89	.74		2.99	.88	
종교 유무	없다(n=114)	2.76	.91	-2.39**	2.80	.99	-1.40
	있다(n=264)	2.99	.71		2.95	.75	
배우자와 별거/각방 유무	아니다(n=256)	2.90	.80	-0.95	2.86	.83	-1.38
	그렇다(n=122)	2.99	.75		2.99	.83	
자녀 동거유무	함께안산다 (n=227)	2.84	.74	-2.43*	2.80	.81	-3.03**
	함께산다 (n=151)	3.05	.83		3.06	.84	
결혼생활 유지기간	30년미만 (n=61)	3.05 a	.84	3.25** a>b	3.10 a	.98	3.98** a>b
	30-40년미만 (n=103)	2.75 b	.86		2.68 b	.87	
	40-50년미만 (n=139)	2.91 ab	.74		2.97 ab	.78	
	50년이상 (n=75)	3.07 a	.66		2.91 ab	.67	
건강 상태	나쁘다(n=78)	3.09 a	.76	11.97*** a>b	3.07 a	.79	9.87*** a>b
	보통이다 (n=163)	3.06 a	.73		3.03 a	.69	
	좋다(n=137)	2.67 b	.79		2.66 b	.94	
생활 수준	어렵다(n=92)	2.95	.76	0.91	2.87	.97	0.74
	보통이다 (n=240)	2.94	.80		2.94	.77	
	좋다(n=46)	2.78	.73		2.79	.85	

*p<.05, **p<.01, ***p<.001.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분석 결과

구분		결혼만족도		
		M	SD	t/F
성별	남성(n=160)	3.67	.85	5.21***
	여성(n=218)	3.18	.92	
연령	60-64세(n=105)	3.33	1.02	0.68
	65-69세(n=101)	3.39	.82	
	70-74세(n=80)	3.51	.92	
	75세이상(n=92)	3.35	.92	
학력	초졸이하(n=155)	3.22 b	.98	4.58** a>b
	중졸(n=74)	3.50 ab	.97	
	고졸(n=65)	3.32 ab	.93	
	대졸이상(n=84)	3.65 a	.66	
직업 유무	없다(n=264)	3.43	.89	1.35
	있다(n=114)	3.29	.98	
종교 유무	없다(n=114)	3.24	.93	-2.09*
	있다(n=264)	3.45	.91	
배우자와 별거/각방유무	아니다(n=256)	3.63	.81	8.01***
	그렇다(n=122)	2.88	.93	
자녀동거 유무	함께안산다(n=227)	3.34	.90	-1.31
	함께산다(n=151)	3.46	.94	
결혼생활 유지기간	30년미만(n=61)	3.36	1.11	1.20
	30-40년미만(n=103)	3.52	.91	
	40-50년미만(n=139)	3.36	.80	
	50년이상(n=75)	3.26	.96	
건강 상태	나쁘다(n=78)	3.18 b	.84	3.49* a>b
	보통이다(n=163)	3.51 a	.92	
	좋다(n=137)	3.36 ab	.95	
생활 수준	어렵다(n=92)	3.03 b	.92	9.51*** a>b
	보통이다(n=240)	3.51 a	.87	
	좋다(n=46)	3.44 a	1.02	

*p<.05, **p<.01, ***p<.001.

3.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역할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 만족도를 종

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여 결혼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둘째, 2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역할 태도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성역할 태도 변수의 상대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명목척도로 측정된 성별,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배우자 별거/각방 유무, 자녀동거 유무는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VIF값을 분석하여 이 값이 10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 태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2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13.221으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는 .265로 결혼 만족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전체 설명력은 26.5%였다. 분석 과정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한 결과 VIF값이 1.096~1.799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학력과 자녀동거 유무, 건강상태를 제외하고 성별, 연령,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배우자와의 별거/각방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및 생활수준이 결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성역할 태도의 성역할 인식, 성능력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11.996으로 p<.001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 R2가 .283으로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28.3%로 나타나 1단계보다 1.8%(△R2=.018) 증가하였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VIF값이 1.099~1.827로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과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배우자와의 별거/각방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및 생활수준이 결혼 만족도의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노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은 성별과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배우자와의 별거/각방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및 생활수준이고, 성역할 태도에서는 성역할 인식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성능력 인식은 결혼 만족도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결혼 만족도에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28]와 차별화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친밀감 사이에 서로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1]도 있으므로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독립변인 \ 단계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1]	-.609	-.301	-5.398***	-.546	-.270	-4.788***
	연령	.107	.122	2.025*	.088	.099	1.660
	학력	-.009	-.011	-0.206	-.004	-.005	-0.096
	직업 유무[2]	-.424	-.195	-3.632***	-.422	-.194	-3.642***
	종교 유무[3]	.328	.151	2.987**	.266	.122	2.403*
	배우자 별거/각방 유무[4]	-.699	-.327	-6.894***	-.710	-.333	-7.054***
	자녀동거 유무[5]	.073	.036	0.763	.050	.024	0.522
	결혼생활유지기간	-.133	-.130	-2.268*	-.126	-.123	-2.164*
	건강상태	-.010	-.007	-0.154	-.023	-.017	-0.340
	생활수준	.211	.135	2.584**	.211	.125	2.615**
성역할 태도	성역할 인식				.141	.141	3.005**
	성능력 인식				.025	.025	0.545
F		13.221***			11.996***		
R^2		.265			.283		
$\triangle R^2$					.018		

*p(.05, **p(.01, ***p(.001
1)성별(남성=0, 여성=1), 2)직업 유무(없다=0, 있다=1), 3)종교 유무(없다=0, 있다=1), 4)배우자 별거유무(안한다=0, 한다=1), 5)자녀 동거유무(안한다=0, 한다=1)

V. 결론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황혼이혼을 낮추고 결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부분적인 차이

가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차이를 보인 변수들이 모두 선행연구와의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차별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조사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은 성별과 직업 유무, 종교 유무, 배우자와의 별거/각방 유무, 결혼생활 유지기간 및 생활수준이고, 성역할 태도에서 성역할 인식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성능력 인식은 결혼 만족도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결혼 만족도에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친밀감 사이에 서로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노년기 부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홍보물을 제공하고, 홍보 책자나 홍보 영상의 제작을 통해 노년기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노년기 부부를 위한 전담 상담기관의 운영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년기 부부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노년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노년기 부부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부분을 다룬다면 노년기의 결혼생활에 대한 심도 깊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고령 시대를 맞이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노년기 부부의 결혼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이 요구되며, 부부 갈등이나 황혼 이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부교육 및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박연옥, *노년기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 이수호, *이혼과 재혼,* 서울: 고려문화사, 2007.

[3] 김혜숙, *이혼상담과 이혼법,* 서울:학지사, 2008.

[4] 성영식, *황혼이혼의 원인과 대책,* 광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 곽배희, 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6] 조혜숙, “중, 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생애학회지, Vol.3, No.2, pp.1-19, 2013.

[7] 김희주, 주경희,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1권, pp.125-158, 2008.

[8] 현경자,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1권, pp.158-193, 2005.

[9] 김영혜, *유배우 노인의 성역할태도, 가사노동분담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0] 신화용, 조병은,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제19권, 제1호, pp.31-44, 1999.

[11] 김수진,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2] R. Gilford, "Contrasts in marital satisfaction throughout old age: An exchange theory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Vol.39, pp.325-333, 1984.

[13] 김미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탐색,*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4] 김애련,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5] 김경신, 이선미,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pp.31-54, 2001.

[16] 임선영, 김태현, “노년기 부부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 한국노년학, 제21권, 제3호, pp.111-128, 2002.

[17] 이혜자, 김윤정, “부부관계(사랑과 성)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4권, 제4호, pp.197-214 2004.

[18] 조혜숙 최수일, “노년기 부부관계 변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313-328, 2011.

[19] 김길현, 하규수,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256-271, 2012.

[20] 권오균, 허준수,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7호, pp.7-30, 2010.

[21] 홍성례,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남녀를 중심으로,” 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5호, pp.37-51, 2006.

[22] 황은,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대학생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제6호, pp.99-113, 2004.

[23] 송정아,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제1호, pp.113-130, 1996.

[24] 이미숙,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제4호, pp.145-161, 2000.

[25] 김태현, 박주희,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79-106, 2005.

[26] 김은지, *부부 커뮤니케이션과 결혼 만족의 관계-긍정지각편향과 성역할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7] 김명원, 강민주,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제8호, pp.25-35, 2011.

[28] 전혜성, 서미아,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349-357, 2012.

[29] 이정은,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노출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남편을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0] 이은주,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 민감성, 부부의사소통,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남편대상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pp.45-71, 2010.

[31] 권정혜, 채규만,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8권, 제1호, pp.123-139, 1999.

[32] A. J. Roach, L. P. Frazier, and S. R. Bowden,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3, No.3, pp.537-554, 1981.

[33] R. W. Jane, M. F. Myra, and S. R. Kathryn, ″Gender and Fairness: Marital Satisfaction on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0, pp.577-594, 1998.

[34] B. H. Vinick and D. J. Ekerdt, *Couple view retirement activities: Expection versus experiences,* In M. Szinovacz, D. J. Ekerdt, and B. H. Vinick, Families and retirement (Eds.), Newbury Park: Sage, pp.129-144, 1992

[35] 유시순, “여성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6권, 제1호, pp.123-140, 2009.

[36] 민경선, 전신, “부부 비동거의 거주현태와 성역할관이 부부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Vol.26, No.3, pp.37-70, 2014.

[37] M. W. Osmond and P. Y. Martin, "Sex and sexism: A compositi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7, pp.744-758, 1975.

[38] 이여봉,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pp.103-131, 2010.

저 자 소 개

임 나 현(Na Hyun Im) 정회원

- 2008년 8월 : 백석대학교(상담학 석사)
- 2013년 2월 : 호서벤처전문대학원(노인복지상담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외래강사

<관심분야> : 청소년 성, 청소년 의사소통